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 나눔

희망을 지피는

2024. 여름(Summer)

## 잊지 못할 콘서트

(이 글은 제 프랑스 선교 때의 이야기입니다)



원진숙 말가리다 수녀

어느 날, 내가 원목으로 근무하는 병원 부속 요양원 다용도실 한구석에 낳선 피아노 한 대가 눈에 띄었다.

아마 입원해 있다가 사망한 환자의 가족이 기증한 모양이라고 혼자 상상하면서, 이 피아노가 그냥 장식용으로 놓여 있을 게 아니라, 여기서 고운 선율이 흘러나와 모든 환자들을 기쁘게 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피아노를 사용해도 되느냐고 요양원 책임자에게 물었더니, 사용해도 되지만, 먼저 조율을 해야 하는데, 요양원 예산에 그 조율비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럼 제가 은인을 찾아 조율을 하면 될까요?”

면허를 가진 정식 조율사이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은 나는 열심히 피아노 조율사를 찾기 시작하였다.

내 처음 생각은, 피아노 조율사에게 무료 봉사를 부탁해 보려는 것이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재능 기부 말이다. 그러나 성탄이 가까워서 일이 많다는데, 더구나 가까운 곳도 아니고 꽤 떨어진 곳에 사는 조율사에게 무료 봉사를 위해 와 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내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포기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아쉽기 그지없었다. ‘아, 성탄에 저 피아노 연주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피아노 반주로 미사 성가도 부르고’



그리고 있는데, 이웃 할머니 한 분이 나를 부르셨다. “피아노 조율사를 찾는다더니, 찾았소?” “찾았지만 너무 비싸서”

그러자 할머니는 미리 준비한 봉투를 내미시면서 “피아노를 그냥 묵혀 둘 수는 없지. 이 돈으로 조율을 하세요.” 하시는 것이었다.

감격한 나는 서둘러 조율사를 불러 성탄 전에 피아노를 손보게 한 후, 감사 인사를 하러 할머니 댁을 찾아갔다. 가까이에서 사셔서 길에서 가끔 마주치기는 하지만, 그 집에 들어가 보기는 처음이었다. 할머니는 바깥출입을 별로 하시지 않는데다가 우울증을 앓고 계시다는 말도 들리고 있는 터였다.

할머니 댁 거실에는 멋진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할머니가 피아노에 관심을 보였던 이유를 즉시 알 수 있었다. “어머나, 할머니, 피아노를 치세요?” - “남편이 살아 있을 때는 쳤었지요. 그러나 이젠 혼자라서”

“저한테 한 곡 들려주시겠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오래 안 쳐 봐서” 하시면서도 피아노 앞에 앉으셨다. 그리고는 잠시 숨을 가다듬고, 결심한 듯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으셨다. 여든이 훨씬 지난 할머니의 손이 날렵하게 건반 위를 날아다니는 모습을 나는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그러다 문득 할머니의 얼굴을 보니, 아!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평소의 조심스럽고 수줍은 듯 하던 모습은 간 데 없고, 연주에 몰입된 열정적인 얼굴에는 젊음이 되살아나 있었다.

“할머니, 며칠 후면 성탄인데, 그날 요양원 미사 때 오셔서 피아노 반주를 해주시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축복하고 싶은 이 생각이 신통하게도 떠올랐다. 그러자 할머니의 눈빛이 빛났다.

“이왕이면 반시간쯤 전에 오셔서 피아노 연주를 해 주시면 더 좋고요. 환자분들을 미사에 모시고 오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삼사십 분 전부터 모시고 오기 시작하는데, 일찍 도착하신 분들은 미사 시간 될 때까지 심심하시거든요.”

할머니는 쾌히 허락하셨고, 나는 할머니를 차로 모셔올 자원 봉사자를 구하기만 하면 되었다. 이렇게 하여 할머니의 기부로 조율된 피아노를 할머니가 개시하면서 성탄 축일을 아름다운 음악과 더불어 기쁘게 경축했다.

이 기쁨을 지속시키고 싶어 나는 할머니에게 매주 미사 반시간 전에 계속 와 주십사고 부탁을 했다. 그 이후로 매주 할머니는 곱게 정장을 하고 어김없이 미사 반시간 전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클래식 명곡들을 연주하시고 이어서 미사 반주까지 하시고는 발그레해진 얼굴에 미소를 가득 담고 돌아가시는 것이었다.

요양원의 노인 환자분들은 자신들과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이 할머니의 연주를 기꺼이 경청하였고, 직원들이나 면회 온 가족들도 스스로 조용히 걷고 나직이 말하는 등 존경의 태도를 보여 주었다.



한 번 정식 콘서트를 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자, 나는 이를 지체 없이 실행에 옮겼다. 내 위로 책임자들이 많으니 여기 저기 허락을 받아내는 일부터 시작했다. 어느 봄날, 요양원 다용도 홀에서 할머니의 피아노 콘서트가 열렸다. 수녀들과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찬조 출연을 했다. 열정적으로 피아노를 치는 할머니의 젊어진 얼굴, 그분을 둘러싼 환자들과 가족들, 직원들, 자원봉사자들의 얼굴 모두가 환히 빛나고 있었다.



## 나무를 존중하며

**나** 무가 장기간 강한 바람에 시달리거나, 기슭에서 자랐거나, 눈 더미 등에 눌러 한쪽에 무거운 하중을 받으면 나무줄기 속에 '이상재(reaction wood)'가 형성됩니다. 뭔가 문제 있는, 특이한 생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좋은 영향만 받고 살지는 않았지요. 많은 일이 어긋났고, 오랫동안 부담에 눌러 있었거나, 폭풍우 같은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특이한 결을 갖게 되었고, 영혼이 편협해지고 상처 났습니다. 나무처럼 우리도 고유의 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이올린 제작자는 각 나무에 형성된 결을 존중하며 그 나무를 작품으로 만들고자 애씁니다. 하물며 하느님은 어떨까요? 하느님의 지혜는 우리의 특성과 세월을 살핍니다. 우리가 지닌 결의 방향과 지난날의 어려운 역사를 헤아려 좋은 울림을 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찾아냅니다. 법칙과 형판과 치수표만으로는 좋은 울림을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지혜와 사랑이 함께해야 합니다.

나무는 악기의 울림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나뭇결을 존중하면 나무로 그 나뭇결이 비로소 개성 있는 울림을 만들어 줍니다. 제작 과정에서 한결같이 나뭇결을 존중할 때, 비로소 나는 좋은 제작자가 될 것입니다. 실수투성이에, 특이한 생장, 이상한 결에도 불구하고 신은 우리가 좋은 울림을 내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변하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가문비나무의 노래 중 (마틴 슐레스케 지음)



##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에페 2,10)

(성소주일에 젊은이들과 함께 하며.....)



이진아 엘리사벳 수녀

**이**번 성소주일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함께 만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주일 당일에 15명의 자매들이 성 프란치스코 공동체에서 하루 피정을 하였습니다.

피정 주제는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에페 2,10)였습니다. 대부분의 자매들은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하느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를 얻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정에서 우리 각자는 하느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창조하신 고유한 존재라는 것,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의 응답해 나갈 때 ‘나’ 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1부는 시작과 성경 강의, 2부는 수녀님들과 토래와의 나눔, 3부는 기도 (하느님과 나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1부 시작 전례 때, 사진으로 각자 자신을 소개하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건넨 말씀, “무엇을 찾느냐?”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 질문을 적어보았습니다. 자매들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법’, ‘주님을 사랑함을 찾고 있습니다.’, ‘길’, ‘오르기만 하는 계단!’, ‘하느님 안에서 만난 반가운 얼굴들과 인사, 그리고 하느님과 나 둘만 아는 여정의 시작’, ‘나(성찰)’, ‘나를 더 이상 혹사시키지 않고 사랑해주는 법과 정말 나의 모습이 드러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하루 피정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청하며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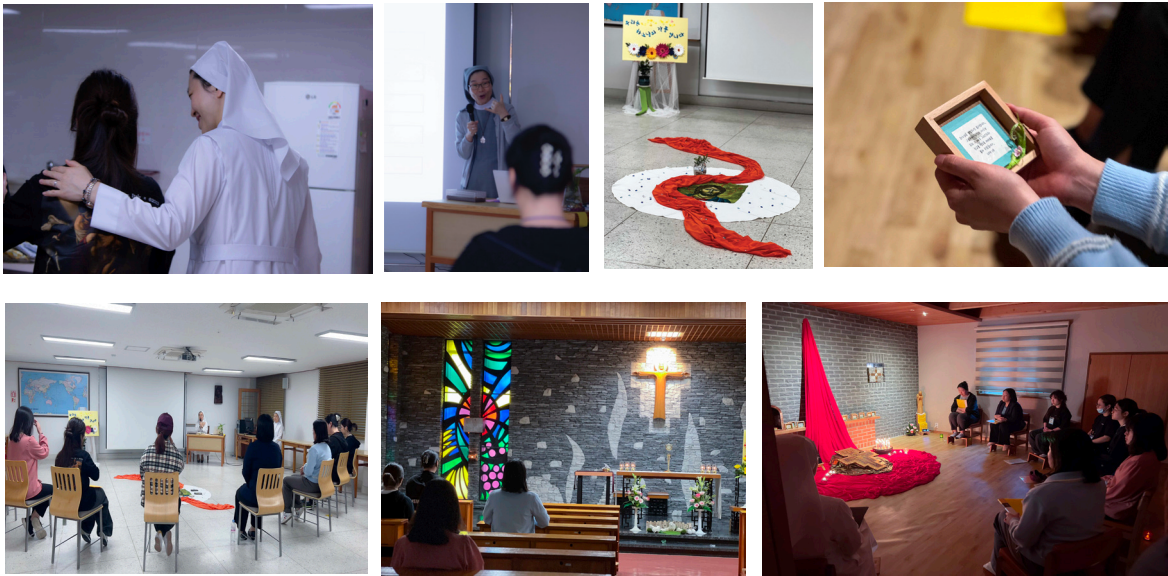
2부 김영선 루시아 수녀님의 성경 강의를 있었습니다. 구약에 2명 (아브라함, 모세), 신약에 2명 (베드로, 마리아), 그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었고, 그런 꿈을 지닌 그들에게 하느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배경 설명과 함께 묵상할 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성당에서 수녀님들과 성무일도 낮 기도를 바치며 기도하는 동안 눈시울을 붉히고 훌쩍거렸던 자매는 수녀님들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웠고, 마치 천상에 있는 것 같았다고 나누어주었습니다. 최수란 수녀님의 성소 나눔은 하느님의 뜻을 찾는 자매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었고, 성프란치스코 공동체 수녀님들의 환대와 정성스러운 식사와 간식은 자매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점심식사 후 두 명씩 짝을 지어 외부로 나가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과 자신에 대해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어디로 가고 하하 호호 웃으면서 돌아오는 자매들이 참으로 예뻐 보였습니다.

3부에서는 기도 안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고 기도실에서 교황님 말씀(『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과 함께하는 떼제기도를 바쳤습니다. 한마음으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미하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자매들의 모습에서 하느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전해져 뭉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받고 진솔하게 나눔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자매들은 하루 피정을 마무리 하면서 하느님의 부르심이 두렵고 망설여졌던 것에 대해 고민하고, 위로와 감동을 받고, 마음이 가득차고 따뜻하며, 든든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며 행복한 모습으로 힘차게 다시 자매들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 사도직 현장에서(디딤돌-사별가족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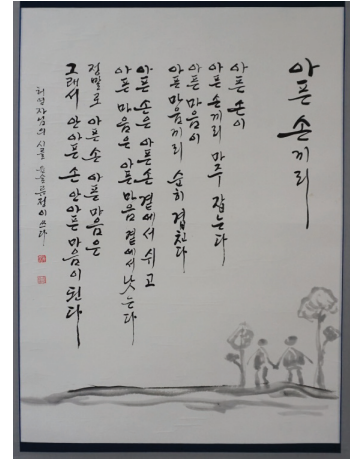
**오**래전에 본 이철수 선생님의 ‘썩들 노래’라는 판화 그림 옆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콩 씨를 가려 성한 것만 밭에 심고  
상해서 온전하지 못한 것들은 뒤 안에 내다 버렸습니다.  
비 개인 어느 날  
뒤뜰에서 그 못난 콩 씨들이  
일제히 썩을 티워 올리는 장관을 보았습니다.  
다 살아 있었습니다.”



최남주 베로니카 수녀

이 간단한 글은 나에게 긴 여운을 남겼다. 한 동안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얼얼하면서 상기된 채로 있었다. ‘짜들 노래’는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착한 목자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어떤 사람이든 귀하게 여기고 보살피는 일을 소명처럼 생각하도록 나를 이끌었다. 나는 계속 사람들 사이로, 그들을 보살피도록 보내졌고, 성한 듯 보이나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사별자들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여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만 울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 주저앉고 싶은 이들도. 사별 상실 후에 슬픔이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고인을 충분히 애도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내 일이다.

지나온 사도직 현장들에서 특히 수도권 평신도 가족을 동반하면서 사별자들을 자주 만났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자칫 위로한답시고 내뱉는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거나 앓을까 두렵기도 했다. 그래서 그들을 잘 돕고 싶다는 생각으로 사별가족을 동반할 이들을 양성하는 교육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공동체든 사도직이든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던 내가 ‘사도직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사도직명은 ‘사별가족동반’ 자매들에게 이 사도직에 대한 내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평의회가 사도직을 시작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리하여 자매들에게 공모하여 얻은 ‘디딤돌’이라는 이름으로 사별자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다른 사람 명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 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금자 명의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받게 됨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으실 분 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아래 은행으로 입금자명(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분)으로 자동이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우리은행 072-475366-13-401 농협 100072-51-060834**

담당자: 010-2821-8174 수녀원 : 02-852-0939  
E-Mail : fmmhelperkor@daum.net

## 회원님들의 희생과 수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 ~ 2024년 4월 30일까지 입금하신 후원자 명단

(재)고려문화재단 (주)모틀초경 (주)버닝하트 SCHOLTEN 가좌동(농협) 주)가나스틸  
골롬반 글라라형제회 양천애덕회 연수성당, 연희동, 원당동 성당 희망의친구들  
인천재속프란치스코회 빈첸시오(가정동, 검암동, 청라, 운남, 석남동, 한국성인  
마전성당 민들레복지회 바이올가 제주이도점 박준우(몽포르 27) 밝은미래  
부산야음재속회 사랑나무치과 소재록(구곡의원) 김정택어울회 아가맘2호  
영적가족8기 원ENG(김진식) 유은분(세인부동산) 찬미회정신자로서 평화장터

강속자(조정권)	김두환(김철형)	김영운(손연희)	김영재(허갑수)	김용수(농협)
김용수(여기정)	김용자(윤소라)	김정매(박치현)	김귀선미리암	김귀선스테파니아
김정웅(김명신)	김주희(신경란)	김현숙(최지명)	김호성(박정식)	김호송(윤군자)
노병덕(권정희)	박병옥(송덕규)	박선하(이오란)	박정순(임현서)	박찬희(강동연)
박태분(최민정)	박혜윤(신상빈)	박혜윤(신유주)	서덕순(서득순)	박은희로사
신정동(예로니모)	신주선(신유경)	당효준이순희	안자영(조진상)	오옥형(최민귀)
유주영(이성혜)	유혜정(헤레나)	윤문섭(문선미)	윤미숙(데보라)	윤순자(양정희)
이광진(홍기원)	이성호(조보례)	이임수(송재용)	이정란(최윤)	이정숙(데레사)
이정숙(마리아)	이정숙(수산나)	이현준(이창석)	정재훈(정지호)	조건희(최희선)
조규진(조남섭)	최정선(윤각의)	추상식(장형숙)	한효정(권오현)	

강경아	강대현	강미현	강신연	연영수	강연호	강인숙	숙용기	강향주	주화자	고대완	완영현	고권순	승순남	희익기	고권기	월영덕	순오칠
고부동	고창호	고재광	고지경	연영수	연창희	강인숙	숙용기	강향주	주화자	고대완	완영현	고권순	승순남	희익기	고권기	월영덕	순오칠
김모상	김도영	김광연	김동현	연영수	연창희	강인숙	숙용기	강향주	주화자	고대완	완영현	고권순	승순남	희익기	고권기	월영덕	순오칠
김성규	김영률	김동상	김동생	연영수	연창희	강인숙	숙용기	강향주	주화자	고대완	완영현	고권순	승순남	희익기	고권기	월영덕	순오칠
김원옥	김현자	김성영	김순영	연영수	연창희	강인숙	숙용기	강향주	주화자	고대완	완영현	고권순	승순남	희익기	고권기	월영덕	순오칠
김찬디	김영희	김성영	김영준	연영수	연창희	강인숙	숙용기	강향주	주화자	고대완	완영현	고권순	승순남	희익기	고권기	월영덕	순오칠
김해자	김희심	김재주	김준희	연영수	연창희	강인숙	숙용기	강향주	주화자	고대완	완영현	고권순	승순남	희익기	고권기	월영덕	순오칠
김상옥	김희심	김재주	김준희	연영수	연창희	강인숙	숙용기	강향주	주화자	고대완	완영현	고권순	승순남	희익기	고권기	월영덕	순오칠



